

2009 입학정원조정안 확정, 정원감축 단행

독어문화학전공은 폐과위기 직면... BT·IT학부에 정원 배분

2009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이 지난 6월 16일자로 최종 확정·단행됐다.

전체 53개 학과 중에서 하위 15% 평가를 받은 8개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이 단행됐다. 독어독문학 전공을 비롯한 하위 1~4위 학과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15%가, 기계공학과를 비롯한 하위 5~8위 학과는 10% 정원이 하향 조정됐다. 이번 결과는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되며 2010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 발표는 내년 5월 경에 있을 예정이다.

△문과대학 철학·윤리·문화학부의 철학 전공(46위)과 윤리문화학 전공(48위), 독어문화학 전공(53위)은 2명씩 정원이 감축돼 각각 21명, 20명, 13명으로 운영된다. 교무팀 관계자는 “독어독문학전공

의 경우 대학생 정원조정 지침에 따라 사실상 폐과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전했다.

△이과대학의 수학과(47위)와 물리학과(51위)는 각각 4명과 5명이 감축돼, 36명과 30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사회과학대학 사회언론정부학부의 사회학 전공(52위)은 5명 감축으로 30명을 배정받는다.

△공과대학의 전기공학과(50위)와 기계공학과(49위)는 각각 11명 5명이 감축돼, 64명 50명정원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계공학과는 경우 2009학년도부터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로 학과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대해 광문규(기계공학) 교수는 “특성화를 유도하고 학과의 분위기 쇠신차원에서 학과 측에 학과명 변경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총 감축된 정원 36명은 전략적 육성분야인 BT·IT 분야와 경찰행정학과에 재배정된다. 바이오학부 의생명공학 전공과 공과대학 IT학부는 현재 인원에서 11명과 15명이 더 배정돼 각각 26명, 290명으로 운영된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우 정원 10명이 늘어나 70명으로 운영된다.

2009학년도 입학정원조정안은 △입학성적(15%) △입학 당시 경쟁률(5%) △편제 정원 대비 재학율(40%) △취업 및 진학률(25%) △교수 1인당 대학원생수(15%)의 항목으로 평가됐으며 신설학과의 의생명공학과와 고등교육법에 입학정원의 제약이 있는 사범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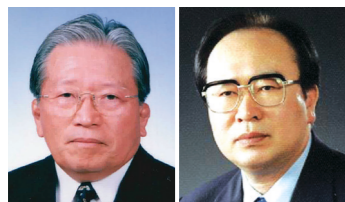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종교 편향 저지 '승복' 물결 지난 27일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정부 규탄 범불교대회'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이 날 상임부행위원장 원학스님은 “종교간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연설했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재단 신임이사 최규철·허천택 선출

제241차 이사회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결정



▲ 왼쪽부터 최규철, 허천택 신임 이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영배스님)가 최규철 전 경주캠퍼스 부총장과 허천택 전 서울캠퍼스 부총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지난 달 26일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린 제 241차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재정 이사 후임으로

허천택 전 서울캠퍼스 부총장, 故 유광진 이사 후임으로 최규철 전 경주캠퍼스 부총장이 선임됐다. 허천택 이사 임기는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4년이고, 최규철 이사 임기는 유광진 이사의 잔여임기인 2011년 12월까지이다.

한편,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기소 중인 이사장 영배스님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상고의 뜻을 밝혔다.

2008학년도 가을학위 수여식 개최

일반대학원 박사 82명 등 1171명 학위수여 받아

2008학년도 가을학위 수여식이 지난 22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사장 영배스님, 오영교 총장, 전순표(농학57졸)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대학원 박사 82명, 특수대학원 박사 1명, 일반대학원 석사 116명, 특수대학원 석사 377명, 학사 595명까지 총 1171명이 학위를 받았다.

각 단과대별 수석 졸업자는 △불교대=박주현(불교) △문과대=권경택(사학) △이과대=김다혜(반도체) △법과대=손나리(법) △사회과학대=박종승(경찰행정) △경영대=박용현(세무회계) △생명자원과학대=하주연(식품) △공과대=허예은(건축) △정보산업대=최태진(정보통신) △사범대=조동현(수

학교육) △예술대=최성은(영화영상)이다.

2008하반기 전과합격자 발표

2008하반기 총 지원자 243명 중 143명이 전과에 합격해, 총 신청인원의 60%에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한편 특정학과로의 출원현상은 이번학기 전과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경영대학 회계학 전공의 경우 경쟁률이 5.25:1로 가장 높았으며, 4.8:1의 경영학 전공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학기 총 전과신청인원대비 경쟁률은 1.38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주의 동국인

‘신기전’ 발사 직전, ‘무생’ 서주성의 떨리는 기다림



▲ 서주성(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영상예술학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

4살배기의 아이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웅은 누구일까? 아베? 선행님? 아이들 둔 아버지들이라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EBS 다큐멘터리 유지원의 ‘변개맨’이다. 아이들의 영웅 ‘변개맨’이 이번엔 영화 신기전의 ‘무생’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연기를 할 때는 순간의 분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 연기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그 역할만 두드러져 결국 전체적

슬자리를 종종 갖거든요, 대부분의 배우들은 자기 관리로 인해 잘 모이질 않지만 저희는 재영이 형, 준호 형도 모두 촬영만 끝나면 매일 밤 다함께 술을 마셨어요” 술과 함께 넘쳐나고 이들과 함께한 영화 신기전, 아마 서로의 연기에 취할 정도의 호흡을 만들어내진 않았을까.

첫인상이 참 선하고 서글서글해 보인다고 하자 “그런 말은 곧 배우에게는 개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감동기복이 심한 극단적인 역을 꼭 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김유진 감독에게서는 살인자의 눈빛을 갖고 있다는 의외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속스럽게 웃는다.

그런 그에게는 ‘연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천직 배우의 꿈이 있다. 외골수 고지식한 고집에 야유를 뿌리던 때는 지났다. 과거와 탈라진 이 새로운 명제를 배우 서주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철민 기자 lan@dongguk.edu

자체평가 시범대학 선정

내년 실시되는 대학 자체평가에 앞서 우리대학이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정부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사립대 4곳 및 국립대 4곳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들 대학은 자체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학내 원산지표시제 ... 그 현 주소는?

쇠고기 뿐만 아니라 닭고기, 돼지고기도 시행 중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가 공식 발표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은 물론 학교와 군대 등 집단급식소 또한 그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우리학교는 7월 초부터 이미 식당메뉴에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생활협동조합(이사장=박상진·생명화학공학, 이하 생협)이 관리하는 원흥관 아리수에서는 쇠고기를 비롯한 식재료들의 원산지는 물론 취급 기준에서부터 유통하는 거래처의 연락처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쌀과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도 이미 표기하고 있다.

상록원과 동국관 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지판이 게시됐으며 문화관 THE KITCHEN 또한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취급하고 있는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며, 쌀과 돼지고기, 닭고기는 주로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

생협 측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서 기자 jongseo0722@dongguk.edu

“로스쿨! 우리는 끝까지 간다”

사법시험 집중반 운영 ... 대학 로펌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달 29일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던 25개 대학 모두를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이들 대학에 대해 6개월 여간 교원, 시설 확보 등 개인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지난 25일 법학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예비인가 당시 배정했던 대학별 입학정원과 선정대학에는 변함이 없다. 교과부는 로스쿨 선정에 탈락한 대학의 추가 인가 및 일부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요구와 관련,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0일, 조선대가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대학의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승소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과대 정용상 학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적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적,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법시험 집중반과 장학제도를 만드는 한편 대학로펌 등 국법률구조지원단(가칭, 이하 동국로펌)을 설립하여 법학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동국 로펌은 법이 정한 최소 수수로료 교내 베테랑 실무교수진과 법조인 인력풀을 총가동해 중급과 법인을 포함, 전 동국인들의 법적 분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 측은 입법적 해결을 위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로스쿨법률안 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본인가 대학 선정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로스쿨 인가가 4년 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정 학장은 “로스쿨 인가인원이 3000명 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시민연대 및 로스쿨대체위와 입학정원 증원 및 추가인가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윤혜경 기자 zzenobia@dongguk.edu

전체교수회의 개최

마스터플랜 설명회 가져

전체교수회 회의가 지난 29일 오후 영교 총장과 한진수 경정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피텔 엠베스터 호텔에서 열렸다.

서울·경주 캠퍼스를 포함한 20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산학협력관 및 기숙사 건설 △고양 미디어클러스터 유치 △해화문 에스컬레이터 설치 △교내 6개동 옥상 녹화사업 등의 주요계획을 설명하는 학사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4회 목격가요제

오는 3일부터 예선접수

제4회 목격가요제가 다음달 2일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예선참가접수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반 가능하며, 휴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동국인들이 솔로·듀엣·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1차 예선은 오는 11일 오후 5시 중강당에서 열리며, 2차 예선은 오는 19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본선에는 10개 이상의 팀들이 진출할 예정이다.

본사사령

◇ 임기만료

- ▲ 편집장 = 이운재(공과대 전기공3)
- ▲ 대학부장 = 김나리(경영대 회계3)
- ▲ 기획부장 = 최미혜(경영대 경영3)
- ▲ 문화1부장 = 문사영(사과대 정외3)
- ▲ 문화2부장 = 이승이(공과대 전기공3)
- ▲ 멀티미디어부장 = 고석현(법과대 법3)

◇ 임기정기

- ▲ 신종서(문과대1)
- ▲ 정용재(문과대1)
- ▲ 이영호(문과대1)
- ▲ 이신혜(사과대1)
- ▲ 김윤수(공과대1)
- ▲ 김철민(예술대 문정1)

◇ 신임부장

- ▲ 편집장 = 정동훈(사과대 경제2)
- ▲ 대학부장 = 윤혜경(공과대 기계공2)

◇ 임수습기자

- ▲ 이정민(공과대1)

- 이 상 9월 1일자



“적을 섬멸해도다!” 우리학교 연극학부와 연희단거리패(단장=이운택·연극학부)가 주관한 창작 뮤지컬 ‘이순신’이 지난달 23일부터 5일간 만해광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사진은 연극의 클라이막스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병사들을 호령하는 모습.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논단



오 태 석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 내 반한감정, 한국인 자성 필요한 때

언론사 엠바고 파기, 내재된 우월감 등으로 혐한 고조 ... 상호존중 해야할 것

이번 북경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를 비롯 총 31개의 메달과 함께 역대 최고의 전적을 올리며 종합 7위의 쾌거를 이루어냈다. 우리 선수들이 땀으로 이루어낸 감동은 새정부 출범 직후의 쇄고기 파동과 촛불 집회 및 경제난 등으로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한어름 더위와 함께 한방에 날려주었다.

그러나 경기 외적 측면에서는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화로 46조를 투입한 북경 올림픽 축제에서 한국을 대하는 중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방송을 통해 본 중국 관중들의 집단적인 반한(反韓) 내지 혐한(嫌韓) 분위기는 우리 국민에게는 뜻밖의 모습이었다. 현지에서는 그 강도가 더 컸음은 물론이다. 이에 중국 정부 지도자들조차 그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이토록 갑작스런 반전의 실체는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중국 사천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나 약 9만명이 하루아침에 유령을 달리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구호 운동도 활발해졌고,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악의적인 댓글과 설전으로 슬픔에 잠긴 중국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인터넷은 신속성, 증폭성, 감성성의 특징으로 정보 공유의 팽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분별없는 내용들이 오르기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생명을 존중하고 슬픔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양식이 요구된다.

이밖에 한국에서의 성화 봉송시의 티벳 사안으로 인한 일부 잡음, 우리나라 5방 송사의 개막식 리허설 장년의 엠바고 파기 등 중국인으로서 80년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이룬 발전상을 내외에 알리고 싶은 축제의 자리에 전통적으로 믿었던 한국민이 진정으로 동감하고 있지 않다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의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인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한다. 한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방한한 후진대 우주석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2년뒤 한중 양국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에 이르도록 합의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군사교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미래 한국의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다.

미중 조강대국을 양쪽에 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극적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균형 잡힌 독자적 생존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좁은 국토, 빈약한 자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지척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우리의 경제적 활로이며, 각 방면에서 손잡고 함께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상생적 동반자임에 틀림없다. 이제라도 한중 양국은 반한 반중의 불협화 정서가 더욱 고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반 협력의 길을 탄탄히 다져놓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선적으로 중국을 바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44배 크기에 해의 화교까지 약 15억의 인구 대국이다. 비록 92%가 한족(漢族)이라고는 하지만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이며, 중국내 동서남북 끝단의 지역들은 기후, 민족, 문화, 언어, 종교, 삶의 방식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많고, 향후 개인의 소득 수준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중국 대륙과 정치 외교, 무역, 교육 등 각 방면에서 역동적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인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한다. 한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방한한 후진대 우주석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2년뒤 한중 양국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에 이르도록 합의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군사교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미래 한국의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다.

미중 조강대국을 양쪽에 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극적이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균형 잡힌 독자적 생존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좁은 국토, 빈약한 자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로서 지척에 있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우리의 경제적 활로이며, 각 방면에서 손잡고 함께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상생적 동반자임에 틀림없다. 이제라도 한중 양국은 반한 반중의 불협화 정서가 더욱 고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동반 협력의 길을 탄탄히 다져놓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선적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44배 크기에 해의 화교까지 약 15억의 인구 대국이다. 비록 92%가 한족(漢族)이라고는 하지만 총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사회이며, 중국내 동서남북 끝단의 지역들은 기후, 민족, 문화, 언어, 종교, 삶의 방식에서 상당히 다양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많고, 향후 개인의 소득 수준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중국 대륙과 정치 외교, 무역, 교육 등 각 방면에서 역동적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인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한다. 한편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방한한 후진대 우주석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2년뒤 한중 양국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에 이르도록 합의하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지하고 군사교류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미래 한국의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부분이다.

의 정신이 외부로 발해져서 절도에 다 맞을 때 이를 '중화(中和)'라고 한다. 즉 중화(中華)의 진정한 달성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남이 주변이 되는 이분적 차이의 세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대등하게 온전한 공존을 이루는 새로운 중화(中和)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그것은 나와 함께 타자를 아우르는 병존공행(共存共行)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동시에 이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을 향해 상호 이해와 우의를 다진 제29회 북경 올림픽의 정신이기도 하다. 양국 정부 역시 미래 지향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 증진의 기틀 마련에 힘써야 한다. 우리는 중국 동포들을 포용하고 재외동포정을 신설하여 그들이 한민족 권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 포용해야 하며,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가 인도주의 정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 터전을 잡고 사는 화교들 역시 제2의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각종 차별적 조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속담에 "웃은 새 웃이 좋고, 친구는 옛 친구가 좋다"(衣以新爲好, 人以舊爲好)는 말이 있다. 실상 모르는 사람하고는 다름 일도 없다. 이웃하다보니 부딪힐 일이 많아지고 또 그만큼 풀어야 할 것도 많아지는 법이다. 비운 뒤에 땅 굳히는 심정으로 상호 존중과 거시의 조망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한중수교 16주년을 맞아 작은 감정의 파문을 떨쳐버리고 16년 묵은 포도주와 같이 양국민의 마음을 보다 숙성시켜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자.

달하나천장에



이 철 한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사람은 누구나 표현욕구를 가지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미니 홈페이지를 꾸미고 동영상 제작활동인 UCC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아는 것, 잘하는 것, 또는 나누고 싶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유전자 어디엔가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유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의견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소수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대중을 상대로

창작물에 대한 에티켓 지키자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열려있게 되었다. 수용자에 입장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재능을 즐길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미디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간극이 어느 때 보다 줄어들게 된 획기적이고 신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서 유명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창작물에 대해서 찬사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으로써 창작자는 유명해질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장기를 살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하자. 이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게시물을 무단으

창작물에 대한 에티켓 지키자

로 도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아가서 자신의 게시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면 작성자는 마치 도둑맞은 심정이 들게 될 것이다. 이때 다른 네티즌이 원래 상업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유용한 게시물을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 작성자는 이에 대한 보답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자신의 제작물이 비상업적인 의도로는 얼마든지 네티즌이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의도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되었을 때는 원저작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권리와 보상을 누려야 한다.

이는 마치 개그맨이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어떤 유행어나 몸동작을 만들었을 때 시청자가 이를 따라하며 즐길수는 있지만 어떤 회사가 광고로 제작한다면 그

창작물에 대한 에티켓 지키자

개그맨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치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의미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CCL(Creative Common License)이라고 해서 이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공유운동이다. 자신의 창작물이 왜곡되지 않고 만들어진 의도대로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또한 패러디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CCL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원저작자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다. 이 운동의 한계점은 이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지 못한다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의 노작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종의 에티켓 운동이라 하겠다. 창작에는 원재료가 필요한데 저작권과는 상충되는 요소가 존재한다. CCL의 확산을 통해서 동국인의 예술혼이 제약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보리수



성열스님
강남포교원장

불교에서는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 나지 않을 법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희유하다고 말한다. 그 희유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하고 많은 생명들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일이다.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인신난득(人身難得)이요 불법난봉(佛法難逢)이라 했다.

넓은 바다 속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거북이는 백 년에 한 번쯤 숨을 쉬기 위해 수면으로 떠오른다. 거북이가 수면으로 떠올라 숨을 쉬기 위해 목을 뻗을 때, 마침 구멍이 뚫린 통나무 하나가 물에 표류하다가 그 구멍에 거북이의 목이 끼게 되는 사건처럼 거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인연이라한다. 그리고 우담바라는 삼천년에 한 번 꽃이 핀다고 한다. 그러나 백 년을 채우지 못하는 인간이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드문 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 또한 우담바라 꽃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희유한 일이라는 것이다.

희유한 인연을 놓치지 말라

우연처럼 보이는 희유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은 기적과 같이 보일 뿐 인연의 결과라는 것이다. 수 없이 많은 세월이 걸쳐 인연을 맺어왔음에도 그런 사연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지 우연일 뿐이라거나 기적이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가 지금 동국대학교에 적을 두고 불식 앞을 오갈 수 있게 된 이 업연한 사실을 단지 우연의 소치일 뿐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억겁에 걸쳐 내가 닦아온 내 복이라고 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각자의 문제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태어나기 힘들다는데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고, 만나기 어렵다는데 이미 불법을 만날 기회를 가졌으니,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윤회의 어둠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이 되겠는가.

메아리



윤형경 대학부장
zenobia@dongguk.edu

▲ '무변존'이란 말이 있다. 이는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상주하고 있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006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변호사가 전문한 지역(무변존)은 122곳(52.1%)로, 변호사가 단 1명인 지역 또한 19곳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변호사 1인당 인구 수(2004년 기준) 부문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에 비해 변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최근 조선훈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대학은 물론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맞서 소송을 낸 9개 대학 또한 연이은 패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민 1인당' 법조인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3000명 이상의 변호사 배출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총 정원은 25개 대학 2000명으로 잠정 결정이 났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도입 초, 현재 매년 1000여명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그 이상의 인원은 결국 법조인들을 과도한 경쟁구도로 내몰아 소송을 남발하는 사회적 분

로스쿨 유감

위기를 조장하고, 수요적 측면에 있어서도 과도한 인력 낭비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수요가 많아 다양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변호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는 소송건만 담당하니 많은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민사 소송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사건의 경우, 미국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전문 변호인에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송한다 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법률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누구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법이 나 홀로 소송을 해나가고 있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로스쿨 제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22곳 무변존의 현실 앞에 로스쿨 인가 인원 2000명 결정은 수요자인 국민적 입장을 간과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사설

불교계의 분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이 모두 참석한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가 지난 27일 시청 앞 광장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사찰의 스님과 불자들은 종교 편향적 인사와 정책으로 국민 화합을 저해하는 이명박 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헌실정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 온 불교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 꾸준히 지적된 종교편향에 대해 거센 저항 의지를 표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자로서 대통령취임에서부터 종교에 관한 균형 잡힌 태도를 잃은 지 오래다.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님께 서울시를 봉헌합니다"는 발언을 해 불의를 일으킨 바 있다. 취임 후에는 기독교 계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초기 청와대 수석의 반은 개신교 신자였고 내각은 16명중 10명이 그랬다. 대부분 소망교회 등 대형교회의 신자들이다. 반면 불교신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불교도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불교계의 성토에도 이명박 정부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지난 6월 최고기 파동으로 인한 대규모 촛불시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두 번의 사과를 했다. 그러나 한·미 쇄고기 추가협상 이후 촛불이 찾아들자 촛불 시위자들을 이른바 '시위꾼'으로 몰아세우고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내가 언제 사과했느냐는 식이다. 불교계의 성토음직임에도 '못 이기는 척'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다시 회귀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기여고 해설사건, 정부기관 지도에서 사찰이 누락된 사건, 경찰총수가 선교 포스터에 등장하는 등 종교편향과 관련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르고서 '국민화합'이란 단어를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인가. 보수 기독교인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이 대한민국인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이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더욱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겪어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이제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한 만큼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한다. 종교 편향문제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지속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몇몇 조치에 슬그머니 물러선다면 자신의 안위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1600년간 민중과 함께 우리 땅을 지켜온 민족 종교의 자부심을 보여야할 것이다.

만평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장 정동훈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제4회 동국대학교 목막이축제

□ 예선
- 접수 : 9월 3일 ~ 9월 9일, 본교 홈페이지
- 1차 예선 : 9월 11일(목)
- 2차 예선 : 9월 19일(금)

□ 본선
- 일시 : 10월 2일(목) 늦은 6시 만해광장
- 사회 : 이정민 아나운서
- 초대가수 : MC 봉, 브라운아이즈걸스(예정)

□ 시상
- 대상 1명 : 트로피, 장학금 100만원
- 금상 1명 : 트로피, 장학금 80만원
- 은상 1명 : 트로피, 장학금 70만원
- 동상 1명 : 트로피, 장학금 50만원
- 인기상 1명 : 장학금 50만원

주최 : 총학생회(비), DUBS(교육방송국)
후원 : 총동창회, 동구청, 학생서비스팀

2008 동국대학교 JOB FESTIVAL 행사 안내

□ 일시 : 2008. 9. 3(수) ~ 9. 4(목) 10:00 ~ 17:00
□ 장소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만해광장
□ 행사개요
- 기업 채용 : 총 48개 기업 및 그룹사 참여
- 컨설팅팀 : 국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영어 인터뷰 · 면접 이미지(메이크업) · 면접 매너(복장, 자세 등) · 공무실 및 공사 · 해외인턴십 및 취업 컨설팅
- 취업지원관 :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및 인쇄, 취업사주 카페인 운영 등
□ 참가 방법 : 행사장에서 등록카드 작성후 무료 참여
□ 교통 안내 : 행사기간 참가자중에서 50명씩을 추천하여 아래의 교통 지원
- MP3 : 3명
- 무선 마우스 : 2명
- USB메모리 : 15명 (2G : 8명, 1G : 7명)
- 문화상품권(1만원) : 30명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탈수습기 *힘찬 도약을 꿈꾸는 그 출발선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진정한 '기자질'의 매력

정확하게 6개월이다. 겨울이 지났고 봄의 봄도 정성없이 보내버리고 말았다. 가을의 열매를 여름에 하기 위해 팝니다 할 여름까지 이렇게 휴가없이 신문사에서 뼈다귀하게 보내고나니 이제는 어느덧 가을이란다. 나는 이 가을에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벌써 탈수습기를 쓰게 되다니..... 좌충우돌의 수습생활, 선배들의 평균수명이 2-3년은 족히 감소했을 기간, 다가오는 마감시간에 어찌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그 6개월간의 수습기간이 끝났다는 말에 '이제서야!' 라는 말보다 '벌써?' 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훌기분할 줄 알았는데 불안함이 앞선다. 그 동안 저지른 실수들이 '수습'이란 이름으로 무마되곤 했었는데 이전 그것들도 오롯이 내 몫이 되버릴 현실이 닥쳤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좋은 싫든 이제는 수습이라는 끈데기를 벗어안할 때가 왔다. 앞서 말한 실수들도 이전 수습생활을 더 한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더 이상 배울 것도, 고민할 일도 없이'라고 확실하는 때는 오히려 기자로서 '끝장나는' 순간일테니까.

빌 게이츠는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한 것이 나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말했다.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꿔보면 'Chance(기회)'가 되는 법. 따지고 보면 모든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는 숨어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난 이제 신종서 수습기자에서 동대신문 기자 신종서로 '변화'한다.

첫 기사에 항의전화를 받아 솔뚜껑처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고, 취재 중 사람들 간의 껄끄러운 관계에 지

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이사람, 저사람 목소리에 혼자 우왕좌왕 방황하기도 했다. 그때 "기자는 매 순간 싸워야 한다"고 했던 선배의 충고가 날 잡아주었다. 그렇다. 놀고 싶은 유혹이든, 내가 쓴 기사에 대한 항의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기자는 매 순간 자신과 싸워야 한다.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고단하고 힘든 생활을 거듭하면서도 그 속에서 변화를 꾀하고 자신만의 한계를 한 단계씩 넘어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자질'의 매력인 것 같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뭐 다를까 싶지만, 난 이제 적어도 우물쭈물 내 과연 뭘 할 수 있겠어?라며 한탄하고 앉아만 있는 사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잘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해낼 것인가'의 문제이니가.

신종서 기자
jongseo0722@dongguk.edu



문과대 영문학부

장맛은 메주, 동대신문은 정웅재 기자

고3이라는 속박 아래 내게 대학은 자유와 동일시되는 존재였다. 그래서 늘 대학에 들어가면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굳은 결심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동대신문사의 기자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평소 애독하던 신문기자를 대학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학한 첫날 동대신문사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땐 신문사 합격이 또 다른 속박의 연장선이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매일매일 취재하고 기사를 쓰며 밤새 조판하는 작업으로 인해 내 새내기 생활은 어느덧 '동대신문사 수습기자'라는 이름아래 고스란히 헌납됐다. 종종 들리던 과방의 비밀번호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 그동안 열광만 알고 지냈던 과 동기들과는 인사조차 어색한 사이가 됐다. 앞선 데 닮긴 격으로 신문사 일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UI선포식을 취재할 때 기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마냥 돌아다니다가 선배들에게 눈물 속 빠지게 혼나기도 했다. 일촉즉발 같았던 등 록금 인상 항의시위는 시위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의 입장과 취재를 위해 한 발짝 떨어져 그들을 지켜봐야 하는 기자의 입장 사이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했던가. 이렇게 힘든 취재 속에서도 때론 즐거운 취재경험도 함께 쌓여갔다. 학교의 얼굴을 알리는 연예인 학생들을 전담으로 인터뷰하면서 동기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들을 만나면서 좋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느꼈다.

나는 속성시킨 메주가 되어가고 있다. 기자 생활의 쓴 맛과 단 맛을 골고루 발효시켜가며 이제는 6개월간의 길고도 짧은 수습기간을 마치고 동대신문사의 정기자가 되려한다.

정기자라는 위치는 지금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할 것이다. 내 두 어깨에 짊어질 그 무거움을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대신문을 이끌어 온 선배들과 나와 함께 할 든든한 50기 동기들, 동대신문의 역사를 이어갈 후배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취재에 나선다. 한날 못생긴 메주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던 난, 곧 구수한 된장찌개처럼 사람 냄새 나는 정웅재 기자로 다시 태어날 테니까.

"안녕하세요. 동대신문사 기자 정웅재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문과대 영문학부

진실이란 빛을 향해 자라나는 해바라기

수습기자 생활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바쁜 날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편히 쉬던 날들이 그리웠고 계속 되자 맞았던 원고가 통과되면 그제야 한숨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습기자였던 내 1학년 1학기의 시간은 정말 아깝지 않은 보석과 같은 시간들이었다.

입시에 한창 찌들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불확실한 미래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오르지 않는 성적을 붙잡고 어른들의 얘기를 엿들으며 세상이라는 눈을 열릴 상상하는 것 뿐이었다.

그 때의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터널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그저 바깥의 빛을 보고 싶은 심정 뿐이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 속에서 책과 신문이 보여준 세상은 수많은 빛의 향연이었다.

하지만 터널에서 갓 나온 나는 곧 수많은 빛 사이에서 나만의 빛을 찾는 연습을 해야 했다. 어두운 우물에서 갓 나온 개구리가 태양의 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듯이 빛의 향연인 지식과 사실 속에서 나는 나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야 했다. 그런 빛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기사로써 강하게 어필하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기자라는 직업은 나를 크게 매료시켰다.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 온 신문사는 나에게 책과 당근 두 가지 모두를 제공했다. 매주 돌아야하는 출입처와 셀 수 없는 퇴고 원고들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문 조판 일까지 정말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한계를 시험해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신문사는 내게 사회적 흐름에 대한 현실 감각과 정보가 흐르는 과정들을 보여주었다. 대학 사회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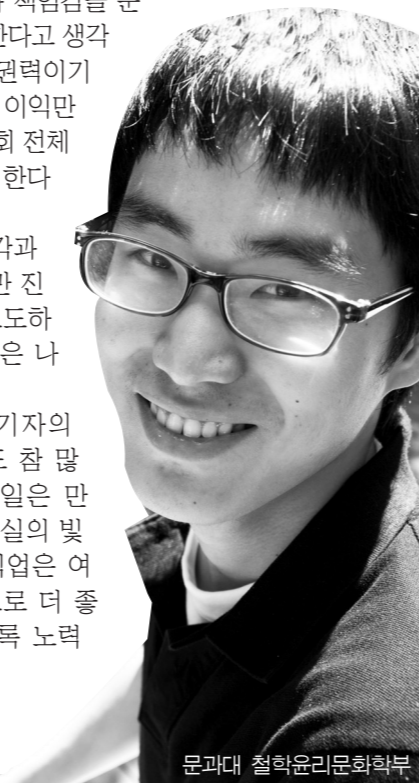
리 사회의 축소판이었고 이 대학사회의 모든 정보가 흘러들어오는 대학 신문사에서 정보의 흐름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거짓의 빛은 싫다. 그 빛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빛에 회생되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나 안타까워진다. 난 기자는 자신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 자체가 큰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저 강자의 이익만을 위한 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빛이 되는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각자의 시각과 시선들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을 굳이 거짓이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억지들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번 촛불 시위를 기자의 눈으로 보며 느낀 점도 참 많았다. 앞으로 신문사 일은 만만치 않겠지만 내게 진실의 빛을 보도하는 기자란 직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앞으로 더 좋은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문과대 철학윤리문화학부

동국 스포트라이트 속 주인공은 나!

"수습이 뭘지나 알아? 군대로 치면 신병조차 못돼. 수습할 때 수자는 짐승 수자거든. 너는 군대로 치면 군견에 해당돼. 고로 수습동안에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

위 구절은 기자란 직업을 다룬 드라마 '스포트라이트'에서 고참 기자인 주인공이 수습기자를 꾸짖을 때 등장한 대사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갈 대사일지도 모르지만 이제 곧 '수습'이라는 딱지를 떼고 정기기자로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을 명언이 됐다.

고등학교 때 방송부 활동을 하며 영상 제작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난 단순히 영상과는 다른 활자매체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신문에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동대신문사 수습기간은 내가 상상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기자 생활도 아니고, TV에서 났던 낭만과 청춘이 있는 동아리 활동도 아닌 혹독한 훈련기간의 연속이었다. 취재, 보충 취재 그리고 기사쓰기로 반복되는 수습기간동안 나는 군견까지는 아니더라도 군기가 바짝 든 초임병이었다.

처음 출입처를 돌 때 문 앞에서 노크하기가 떨려 손을 몇 번 내댔다. 울렸다 하기를 여러 번, 취재를 거부하는 취재원과의 만남은 나에게 곤란의 연속이었다. 그들의 반응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만이 머리 속에 맴돌 뿐 미숙한 태도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그 후 취재원들에게 '미숙한 학생기자'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출입처의 모든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철칙을 세웠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던 처음에 비해 진땀을 빼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능숙하게 출입처 문을 열고 들어가 조금은 여유있는 모습으로 취재원들을 만나는 '나'를 발견한다. 또한 후문 거리 공사 취재

때 "학생기자 덕분에 휴가까지 반납하게 생겼다"고 말하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도 능청스럽게 취재를 해냈던 것이 이 근성 덕분 아닐까 싶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아가면서 중심이 잡히는 거야. 먼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란 드라마 속 켈의 대사는 모든 것이 서툴렀던 나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독인다.

수습기간동안 현장을 뛰며 취재했던 모든 경험이 쌓여, 나아가 '해외특파원'으로서 활약할 내 미래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데이비드 드라마 속 기자만큼 동경하는 나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현장의 맛'을 알아버린 나이에 앞으로도 난 치열하게 현장 속으로 웃으며 출몰이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사과대 사회언론정보학부

이상, 나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

이상을 꿈꾸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이상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꽤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상은 단지 이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쿠바의 혁명 영웅 체 게바라는 이렇게 말했다.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갖자." 현실을 직시하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인간, 그것이 나의 이상이다. 기사야말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꿈 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여 난 내 꿈을 위한 첫걸음으로 동대신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기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기자의 꿈을 꾀했던 이 햇병아리는 지난 한 학기 신문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출입처를 배정받아 본격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무렵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질문공세를 해야한다는 어색한 상황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와중에는 크나큰 실수도 저질렀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오보를 낸 것이다. 그 때 나는 난생 처음 책임감이란 단어를 뼈저리게 느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신문에 대한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된 나의 모습에 내 자신도 놀랐던 순간이었다. 이렇듯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신문에 대한 애정이 커질 수록 동시에 책임감이라는 굴레는 비례해갔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이라는 말에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신문사 생활을 끝까지 마치고 싶은 의지가 더욱 굳건해졌다. 힘들었던 과정 중에 알게 모르게 생긴 오기가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의지로 바뀐 것이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학기가 지나가고 나는 이제 탈 수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곧 동대신문사 사진기자로서 학내의 모든 현장 속에서 빠지지 않고 뒹뒹질할 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 내가 평소 애독했던 종군기자 제임스 나트웨이는 "나는 증인이 됐고, 이 사진들은 내 증언이다. 내가 기록한 이 사진들은 잊혀져선 안돼고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내 카메라와 내가 찍은 한 순간 한 장면이 동국대 역사의 산 증인이 될 것이다.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꿔 낼 멋진 김윤수 기자. 그 첫 발을 동대신문사라는 곳에서 꿋꿋이 내딛을 것을 다시 한 번 내 자신과 약속한다.

김윤수 기자
ysher021@dongguk.edu



공과대 IT학부

김활란은 연습한다, 고로 기자한다

누군가 '인간연습'이라는 말을 했다. 인간은 기나긴 세월 동안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시도하면서 더러는 성공도 많이 실패도 한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시도하며 고단한 되풀이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한 연습과도 같기 때문이다. 신문에 들어와 자유보다는 구속을 더 즐기고 싶고, 여유보다는 뻔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인간다워지기 위한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내게는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 우스스스스스스스스 모르지만 복날이란 복날은 모두 챙겨가며 몸보신을 위해 애썼다. 갓 들어온 수습 딱지를 달고 취재 하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늘 출입처 문 앞에서 들어갈 시기를 두고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지, 6개월 동안 땀 뻘뻘 보충하기란 복날 모두 충실해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나의 수습생활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모든 것이 막연하기만 했기에 그랬다", 구차하지만 굳이 붙인 변명이었다. 우리대학에 20억이라는 대단한 규모의 기부로 떠들썩했던 이 방주 사장의 소식을 나는 조선일보를 통해 알았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출입처에서 나온 소식임에도 나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먼저 사실을 알았다. 허술하고 빈틈 많은 취재의 현장들이 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기자로서의 '자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세' 정도는 준비되어있다고 자부했음은 착각에 불과했다. 특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뒷북치는 보도는 지양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자존심인데 말이다.

탈수습이라는 말, 아직은 그야말로 감개무량한 단어다. 여전히 인터뷰가 잡히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20개를 뽑아 10개를 골라낸다. 짧은 단신을 쓰면서도 꽤나 애를 먹는 지금

이다. 무난히 지나가길 바랐던 마음이 더 컸기에 수습 딱지를 떼어낼 만큼 상처가 충분히 아물었는지 두렵기만 하다.

후대전화에 02-2260-XXXX이라는 번호만 떠도 혹시 또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진다.

대학가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신문사는 방해만 되지 않는다는 편견은 너무 익숙하게 들 어온 소리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야유에 대한 반문을 제기할 차례다.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취재하고 기사를 쓸 때의 그 짜릿함을 느껴본 적은 있는지, 그런 특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말이다.

어쩌면 내일도 통화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역시나 난 그 유쾌한 특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기자 김활란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국내 최초 공정봉사단 '누리 보듬' 몽골을 보듬다



몽골 해외봉사와 충무역사 탐방

방학을 맞아 해외를 누비는 동국인들의 활동은 활발했다. 우리 대학 '누리보듬' 봉사팀은 몽골로 공정봉사 활동을 했고 고구려 유적 탐방은 용맹했던 우리 선조의 숨결을 중국에서 느끼기도 했다. 이번 호에는 방학 기간 동안 '동국'이 해외에서 흘린 땀과 열정을 조영한다.

편집자



공정여행이란?

단순히 즐기는 대신 현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행이다.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공정 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까지 생겼다. 대형 리조트보다 지역 밀착형 숙소를 이용하고, 집안들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여행비를 현지 동물 보호 사업에 기부하기도 한다.

공정 여행을 위한 10가지 제안

1. 환경 파괴 최소화 : 비행기 이용 줄이기, 1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물 절약
2. 동식물 보호 : 동물 학대 투여 자제, 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물건 구매
3. 성매매 거부 : 아동 매춘, 비즈니스 매춘 등 거부
4. 지역에 도움 주기 : 현지인 운영 숙소, 음식점, 교통, 가이드 이용
5. 윤리적 소비 : 과도한 쇼핑하지 않기, 공정 무역 제품 이용
6. 관계 맺기 : 현지 인사말과 노래 춤 배우고 작은 선물을 준비
7. 여행지 사람과 문화 존중 : 현지인 생활 방식 존중 존중
8. 고마움 표현 :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마음 갖기
9. 기부 : 여행 경비 1% 현지 단체에 기부
10. 행동하는 여행 : 환경 파괴나 비윤리적인 일은 항의하거나 거부

출처 : 평화운동단체 '이매진 피스'

충무역사 탐방이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고구려 역사 탐방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고민하며 문화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제도이다.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역사 탐방을 통해 학생들은 고구려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심양, 집안, 단둥, 대련 등 고구려 유적지를 탐방하며 그들의 지혜와 기개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백암산성을 비롯해 백두산, 광개토태왕릉비, 국내성 등 고구려인들의 손길이 남아있는 유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앞으로도 고구려 역사 탐방은 매해 여름 방학기간 진행돼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백암산성 비석 앞에서의 고구려탐방단



▲ 새로 지어진 아파트 옆에 방치돼있는 국내성

참사람봉사단, 현지인과 함께 봉사프로그램 직접 계획

활동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 예정

국내 최초의 해외 공정봉사단인 우리대학 '누리보듬' 봉사팀이 지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참사람봉사단과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지역과의 교류, 친화경 등 '공정봉사'의 원칙을 세우고 지역과 어우러지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정봉사 시도
우리나라의 해외 봉사는 현재 그 횟수가 일 년에 몇 건 일만큼 그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매년 떠나는 해외 봉사단의 80%는 단기 해외 봉사단이다. 경험과 준비 부족, 짧은 시간 내 성과를 내야하는 단기 봉사의 특성상 깊이 있는 봉사활동은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참사람 봉사단과 조계종 사회 복지 센터는 공정봉사라는 컨셉을 계획했고, 그 대안을 공정여행에서 찾았다. 이 봉사를 기획했던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의 김동훈 팀장은 "가끔은 한 번의 단기해외봉사로 드는 비용으로 물이 부족한 마을의 우물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 희희감도 들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하고 시도한 것이 이번에 다녀온 국내 최초 공정봉사이다"라고 밝혔다.

공정봉사는 '공정여행'이라는 윤리적 여행 원칙을 봉사에 접목시킨 것이다. 친환경, 지역 경제 환원 등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인데 누리보듬팀 역시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방중에도 학생들 스스로 봉사계획을 짜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봉사단의 대표를 맡았던 신승봉(산시공4) 군은 "4학년이라 취업 준비로 바빠지만 봉사를 위해 여름 방학 중 많은 시간을 봉사 준비에 할애했다. 소

고춤 연습 등 지역주민과 어울리기 위한 준비가 힘들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말했다

▲ 바트승베르 노인 요양원에서 4박 5일
은 누리를 보듬는다는 뜻의 누리보듬 봉사단은 몽골 친구들과 함께 몽골의 바트승베르 노인 요양원에서 4박 5일 동안 벤치 만들기, 소각장 만들기, 벽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목욕 봉사, 1일 나들이, 문화 공연, 사진 전시회 등의 활동도 같이 펼쳤다. 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했던 몽골인 친구 미나 씨는 "수천 km가 떨어진 곳에까지 찾아와 봉사하는 한국친구들이 고맙다"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을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누리보듬'팀의 이종우(영화영상4) 군은 "몽골이 오랫동안 공산주의의 장막 아래 있었기 때문인지 지배 당시 지어졌던 요양원은 폐쇄적이다"며 요양원을 본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요양원을 조금만 벗어나면 펼쳐지는 넓고 고요한 초원과 한가로이 거니는 가족들은 이념으로 대립했던 인간의 오만과 욕심을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며 몽골에 대한 자신만의 소감을 밝혔다. 또 한상규(서양화1) 군은 "순수한 몽골의 자연은 몽골친구들과 닮아있다. 남자친구들은 포레임에도 어린아이 같은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장난을 쳤고 여자아이들은 고요한 초원처럼 온화하면서도 차분했다"며 몽골을 처음 본 소감을 말했다.

▲ 드림센터 개관식 도움활동
요양원에서 4박 5일간의 봉사 끝마친 봉사단은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드림센터로 이동했

다. 드림센터는 몽골 아이들에게 한글과 컴퓨터를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 재단에서 울란바타르 바양주레후구 24동에 세운 건물이다. 센터는 다음날 개관식을 앞두고 있었다.

봉사단의 2차 봉사활동은 개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들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학생들이 공부할 2층 공부방을 꾸미는 활동을 했고 벽화를 그리고 페인트칠을 했다. 이어 일주일 중 하루를 청소하는 '클린 데이'로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줍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드림센터 개관식에서 봉사단은 동네주민들 앞에서 소고춤 공연을 펼쳐 축제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개관식은 봉사단이 준비한 김밥과 고기들로 인해 한바탕 동네 잔치 분위기로 들쭉였고 한국에서 몽골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가져 온 저금통, 사탕 등은 금방 동이 나버렸다. 한국 측 인사였던 고려사의 경산 스님은 개관식을 보며 "마을이 잔치 분위기다. 이 개관식을 통해 현재 공동체의 중심점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드림센터를 중심으로 뭉치고 화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흐뭇한 기분을 표현했다.

▲ 몽골 학생들과의 우정
그렇게 몽골과 함께했던 10박 11일은 끝이 났다. 우리 학교 측 대표로 봉사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무봉(국어국문학과) 교수는 "한국 학생들이 몽골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과 어울릴 수 있었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대표인 김혜련(경영3) 양은 "몽골 학생들과 우정을 쌓고 앞으로 계속 연락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다. 마지막 날엔 캠핑을 하며



① 웃음을 함께 나누는 몽골 아이와 한국 봉사단원
② 몽골 봉사단원과 한국 봉사단원이 벤치를 손질하고 있다
③ 벽화를 통해 치기웠던 요양원 벽에 화사함이 가득해졌다
④ 드림센터 벽화 그리기를 함께 하고 있는 아이

서로의 우정을 확인했고 편지를 쓰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며 마지막 날 몽골학생들과 이별의 서운함을 밝혔다.
한편 누리보듬 봉사단은 몽골학생들과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해 나갈 예정이다. 조만간 몽골에서 담은 사진들의 전시회가 있을 예정이며 몽골 친구들과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몽골에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참사람 봉사단 박현숙 직원은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 몽골학생들과 교류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무너져 가는 우리의 '고구려'

고구려 역사왜곡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절실



'국가가멸 사불가멸(國家可滅, 史不可滅).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도 그 역사는 없앨 수 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이자 있다.

독도영유권분쟁과 동북공정이라는 역사왜곡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때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고, 잊혀져가는 고구려 역사의 열기를 되살리고자 지난 6월 21일 20명의 학생들로 충무역사탐방단은 고구려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중국 땅을 밟았다.

'백암산성' 답사를 첫 번째로 중국인들의 모순된 역사왜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 시대 '백암산성'이라 불리던 이 성을 중국인들은 연나라 성이란 뜻을 가진 '연주성 산성'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백암산성 증축 이후 흘러간 시간과 고려해보면 무너지고 훼손된 부분도 있는 것이 어찌된 당연한 듯 보이지만, 마음 한 편이 아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백암산성 뿐만 아니라 탐사 기간 내내 많은 고구려 유적들이 소홀한 관리 속에 방치되고 허물어져 그 역사적 의미 또한 함께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겨지고 있었다. 특히 오후로 내 고구려 벽화인 사신도는 빗물과 습기 때문에 천장과 벽의 훼손이 심해 특유의 색감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또한 국내성 옛터는 시내의 아파트 단지 옆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시한부 환자처럼 남겨져 있었다. 아파트



▲ 고구려지도를 설명중인 운영철교수와 귀담아 듣는 학생들

▲ 고구려인들의 섬세한 증축 능력이 돋보이는 환도산성

단지가 지어질 당시 중국 내 중요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여 많은 훼손이 가해진 후 또 다시 중요문화재로 재평가를 받았으나, 성터 주변에는 출입을 금하는 초록색 철조망을 쳐놓았을 뿐이었다.

중국 측의 이러한 유적 훼손 사례 뿐만 아니라,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왜곡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호산산성 내에는 고구려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설명이 담긴 지도와 조각된 유물들로 가득 찬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박지민(법학3)양은 "직접적인 역사왜곡의 현싵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다. 가짜 고구려 유적들의 관광수입이 중국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또한 경제개발구와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백두산공원이 건설되는 중이었다. 전 국가 주석인 장쩌민이 직접 백두산을 시찰할 정도로 중국은 백두산 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림픽을 기회로 백두산 전체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지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탐방단 모두는 중국의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윤명철(교양교육원)교수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본 고구려 역사 왜곡의 실체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고구려는 다르다"며 "단순히 고구려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위기의식과 함께 고구려 역사의 풀이와 마음속에 뿌리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의 고구려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이 진정된 고구려 역사와 전통을 등한시한 채 '주몽'과 같은 드라마와 부수적인 콘텐츠에만 매료되어 왔던 건 아니었는지 뒤돌아 볼 수 있게 해 준 기회가 됐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2008학년도 2학기 퇴임교수

동국, Auf Wiedersehen!



임호일
문과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헤르만헤세, 프란츠카프카, 괴테. 이들의 공통점은 '독일어'로 전 세계인들의 감성을 자극한 대문호라는 것이다. 독일어 특유의 철학적 매력에 담긴...

종합대학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최근 우리대학의 입학정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쓴소리를 던졌다. 또한 폐과 위기에 당면해 있는 제자들에게도 "비록 지금은 과거 위축되었지만 독문학을 탐구한다는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주시길 바란다"는 소망을 비쳤다.

퇴임을 앞둔 그가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안타깝다는 것이다. 독문학이 한국 대학 사회에서 비인기 학과로 낙인되어 외면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인터뷰의 서두를 열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하에 독어문화학과와 인원을 줄이는 것은

독일의 리얼리즘 작가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의 독일 문학에 대한 열정은 '게오르크 뷔히너'의 전작품 번역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퇴임 후엔 새 차로 국내 일주를 하고 싶다"고 밝힌 임 교수. 자신의 생일날 출석 이탈리아로 떠나 '이탈리아 기행'을 저술한 괴테와 같이 퇴임과 동시에 학교 밖에서 그만의 자유로운 여행을 써내려갈 임 교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신혜기자
leeshin@dongguk.edu

나는 그저 나이많은 학생일 따름



박인국
생명과학대 바이오화학 생명과학과 교수

"학문의 큰 바다에 어찌 교수와 학생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나이가 많은 학생일 따름입니다". 퇴임을 앞둔 박인국(생명과학과) 교수의 연구실에 발을 들여 놓으면 먼저 이런 문구의 2004년 신입생모집 광고카피가 눈에 보인다.

박 교수가 "직접 느낀 바를 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한 이 구절은 실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그의 겸손한 연구 철학을 확연히 보여주는 글귀이다. 선인장을 비롯해 무럭무럭 자란 녹색식물로 뒤덮인 연구실. 그곳에는 여느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책과 논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죽은 지식보다는 살아 있는 연구가 좋은 것과 같은 이치"라며 평

소에도 생물들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박 교수의 연구실에는 시들지 않는 그의 열정처럼 그렇게 파릇파릇한 생명들이 아직도 숨쉬고 있었다.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힘든 유학생들을 곳곳에 버릴 수 없었다는 박 교수. 그 때문일까. 27년간의 교수시절 동안 학생들에게 다문화 시대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려는 교수법을 고수했다. 그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오즘같이 독도 영유권이야 동북공정같이 한국인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일수록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라"고 말한다. "내 학문이 부족해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잠재력을 끌어내주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이라는 박 교수. 그는 교단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오늘도 밤낮없이 번역과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퇴임 후에도 배움의 길을 걷는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느껴 본다.

신중서 기자
jongseo0722@dongguk.edu

수학,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 예술



김용기
사범대 수학교육과 교수

재미없다면 왜 그걸 하고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를 어려워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 수학과 함께 했기에 행복했다는 수학교육과 김용기 교수를 만났다. "내가 비록 딱딱한 수학 전공이지만, 클래식을 참 좋아해. 테너 흉내도 곧잘 내곤 했었지"라며 웃는 김 교수의 미소 속에 '퇴임'이라는 단어는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수학과 평생 연애하며 살아온 그에게 그의 수업 방식은 연애를 위한 첫걸음, 바로 '교감'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들을 이해해야 해, 학생들과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신바람 나는 강의할 수 있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준 수학, 행복함을 함께 하고 싶은 스승의 마음이 욕심일까. 도중에 경제적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마음 아프다는 김 교수는 "포기 않고 결국 해내주면 스승과 제자 모두 이긴 나름의 Win-Win 전략이 아니냐"며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힘을 내준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김 교수에게 수학은 어떠한 학문일까. "수학은 예술과도 같지, 숫자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교향악의 음표들과도 견줄 수 있거든" 그와 함께 배우는 예술은 얼마나 환상적일지 가늠해 하는 대답이 있었다. 평생 교육과 연구 밖에는 몰랐던 김 교수. 퇴임 후에는 즐거운 일탈에 도전해 볼 계획이란다. "국내에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처럼 가볼 곳이 많은 나라도 드문데 말이지"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무탈히 백두대간 등반을 마치는 것이다. 언제나 한 가지 예술 밖에는 몰랐던 김용기 교수의 두 번째 예술, 그 시작이 벌써부터 설렌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2008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대학원 미술사학과 최 응 천
민족 문화의 전당이자 살아 숨쉬는 국보들과 함께 했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25년간은 저에게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철의 미술사를 전수하고자 과감히 모교에 돌아왔습니다. 미술사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문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술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히 보는 안목을 기르는데 있으며 이는 문화재를 이해하는 깊은 애정과 오랜 동안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때로 책상에 머물지 않고 박물관, 미술관 뿐 아니라 사찰과 유적을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런 생동감 있는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불교학의 구성원이 되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 미술사학과가 명실상부한 한국 불교미술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바쳐 학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한국불교역사 전공 △동국대학교 불교미술학 △충익대학교 미술사 석사 △구주대학교(일본) 미학미술사 박사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

영어영문학부 James O'sullivan
My name is James O' Sullivan and I'm from England.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teaching in the English Department this coming semester. There seems to be a special aura about Dongguk; an aura that one immediately feels when entering the campus. Perhaps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delightful location and the manifestly happy marriage between the university's Buddhist tradition and its progressive academic institutions. Whatever the reasons: I am very happy to be here and feel at home already.

△University of Sussex American Literature △University of Brighton Critical Study 석사

수학과 문 환 표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치 해석은 자연계나 공학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풀어나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추상적이고 어려운 수학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며, 얼마나 실용적인 학문인지를 알아가시는 즐거움을 많은 학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와 교육 모두에 충실한 동국대 구성원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수치해석학 전공 △서울대학교 수학과 석사·박사 △서울대학교 BK21 수리과학 사업단 연구원

통계학과 주 용 성
명문 사학 동국대학교에서 대한민국을 이끌 어 나갈 인재들을 만날 생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에 관계없이 동국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통계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여러 학문 들은 세분화된 전공자의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이 세부 전공자들 간의 협동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계학을 환경, 의학, 생물학과 같은 학문과 접목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많은 학생, 교수님들과의 협동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 전공 △고려대학교 통계학 △Cornell University Biometry 석사·박사 △Assistant Professor Biostatistics, PHHP, University of Florida

정치외교학전공 이재철
비교정치 분야에서 민주주의 및 사회자본을 연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의 대표 사학 동국대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학생 지도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의 모습과 함께 마음 따뜻한 선생님, 열정을 지닌 선생님, 기쁨을 주는 선생님, 준비된 선생님으로서 동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동국인이 되겠습니다. 동국인으로서 첫 학기를 맞이하면서 넘치는 의욕과 패기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계획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초심을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우리 학교 도약에 크게 이바지하는 존재라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교정치 전공 △사경대학교 정치외교학 △Ohio University in Athens 정치학 석사 △University of Missouri in Columbia 정치학 박사 △사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행정학전공 이 주 하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정부활동 및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행정학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개입하여 복잡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 특징, 변화양상 등을 고찰하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행정학은 여러 사회과학과 연결된 종합학문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주며, 실천 지향적 응용학문으로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사회양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어떻게 형성·집행되는지에 대해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정책학 전공 △연세대학교 행정학 △Oxford University Dept. of Social Policy 석사·박사 △UN Governance Centre 연구정책개발팀장

국제통상학전공 이 주 원
무역은 각국의 수출입제도, 무역계약, 금융, 운송, 보험,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거래법, 국제통상법, 국제관습 등 많은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단편적으로만 알아서는 무역에서 실패할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이국인 이루어지는 거래인 만큼 분쟁도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양태도 복잡다양합니다. 저는 지난 30년동안 무역거래법을 해결하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많은 분쟁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한 학습방법도 좋지만 실패사례를 통한 학습방법도 때로는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역거래에서 발생되었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하여 학생들과 아주 흥미진진한 수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역실무 전공 △영지대학교 무역학 △한국의외어대학교 무역학 석사 △동국대학교 무역학 박사 △경원전문대학 겸임교수

경찰행정학과 조 운 오
우리의 일상은 항상 범죄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말다툼으로 폭행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절도, 사기,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로 인해 행사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학은 이러한 다양한 범죄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형사정책 시스템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보호관찰관으로 법무부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죄자 처우 정책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제 저의 경험과 지식을 동국에서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100년의 훈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동국!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범죄학특강'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범죄학 전공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석사·박사 △법무부 보호교 보호관찰 사무관

경영학전공 안 중 상
외래교수로 지난 두학기를 학생, 교직원분들과 교류하면서 편안함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제 그분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떤 정진으로 보답을 해야할까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자합니다. 경영학은 실천학문입니다. 기업경영현장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한 것을 학문적 틀에 접목하여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의와 자발성이 경영자의 핵심역량인 21세기에 절실히 필요한 경영리더십은, '일의 효과성'을 아우르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감성리더십', 우리표현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입니다. 마음개집의 도량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하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경영일반 전공 △서울대학교 섬유공학 △Harvard대학 경영대학원 경영전략 석사 △삼영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조교수

경영학전공 Dennis Cervantes
First of all, I am honored to be a new faculty member at such a prestigious and progressive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has a world-class faculty who embody excellence, while preparing its students for tomorrow's challenges. What I truly admire about Dongguk University are its academic ambitions: not only does Dongguk University want to be the best university in Korea, but it also wants to be a world renown university. I believe this an attainable goal, given the numerous academic assets Dongguk possesses. As such, this quality separates Dongguk University from many other Korean universities who only want to be the best in Korea. Finally, I am humbled and honored to become a part of a university who's affiliated with Buddhism. Buddhism represents mankind's best qualities: tolerance and peace.

△경영일반 전공 △UCLA History △UCLA History and Politics 석사 △건국대학교 Visiting Professor

회계학전공 남 혜 정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의 가족으로서의 첫 교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회계학을 전공하였으며, '기업의 내재가치와 주가예측력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의 도입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회계전문인력과 연구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교육과 연구에 임하며,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회계학 전공 △인하대학교 경영학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박사

전자공학전공 황 금 철
전자 및 안테나 분야는 전파의 진행 및 산란 현상을 해석하고 다양한 안테나를 연구하여 레이더 및 통신시스템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또한 최근 휴대용 통신기기의 급속한 발전과 자주 국방기술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기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사립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 긴장감과 사명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전자파와 안테나 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며 기업체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과 연구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테나 및 전파전자공학 △부산대학교 전자컴퓨터공학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신학 석사·박사 △삼성텔레콤 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자공학전공 변 상 진
서울의 중심에 있는 전통있는 동국대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의 연구분야는 유무선 통신용 안테나 및 혼신신호 집적회로 설계분야입니다.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전, 네비게이터 등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 제품들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단일 소자에서 점차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설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테나 및 집적회로에 관심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좋은 연구해서 동국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MOS로날로IC설계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박사 △한국전자인사연구원 선임연구원

컴퓨터공학전공 홍 정 모
최초의 범용 컴퓨터 에니악이 개발된 후 60여 년 동안 컴퓨터 공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산업의 급격한 발달에 힘입어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 특수효과,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컴퓨팅이 새로운 응용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한 분야로 시작된 '비주얼 시뮬레이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시뮬레이션은 학문적인 깊이에 산업적 실용성과 시각적 예술성까지 갖추고 있는 매력적인 연구 분야로서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이 뛰어난 우리 민족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대표 사학 동국대에서 창의적인 도전 정신을 가진 인재들과 함께 학문의 꽃을 피워 민족 번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그래픽스 전공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사 △고려대학교 컴퓨터학 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수학교육과 이 한 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국대학교에서 수학을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기예보,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금융상품들은 고도로 어려운 수학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학의 쓰임을 볼 때, 수학은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수학의 기초를 교육시킬 수학교육과 학생을 포함해서 모든 동국인들이 수학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유용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석학 전공 △오송공과대학교 수학과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석사·박사 △오송공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광고홍보학과 박 우 덕
오랫동안 광고현장에서 일해 온 작은 경험들이 광고를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한국 광고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광고의 즐거움, 광고의 매력 속에 빠져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광고제작 전공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 (주)헬름 대표이사

대학 최초 베이징올림픽 학생 취재단 ‘임무 완료!’

선수 인터뷰 · 중국 문화 등 폭넓은 취재 ... 조인스닷컴 및 포털 등에서 화제



▲ 18일 간의 취재일정을 무사히 마친 우리학교 취재단과 동문, 교환학생들

우리나라 역대 최고 성적을 남긴 베이징 올림픽, 그 속에서 동국미디어센터 베이징 올림픽 학생 취재단도 선수들과 함께 열정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달 5일 동국미디어센터(센터장=윤재웅·국어교육)는 베이징 올림픽 학생 취재단(이하 학생 취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학생 취재단은 학내 구성원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의

올림픽 정보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동대신문사, 동국포스트, 교육방송국과 일반 학생 선발자로 이루어진 25명의 학생기자는 전반기 14명, 후반기 11명으로 나뉘어 취재를 담당했다. 전반기 학생들은 6일부터 15일까지, 후반기 학생들은 14일부터 23일까지 활동했다. 학생 취재단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여덟 차

례의 교육과 합동 워크숍을 했다. 그 결과 제출한 아이디어를 △올림픽 △중국 문화 △중국 대학문화 △중국 불교와 문화유적 △동문 △방송 △사진으로 분야를 나누어 사전 조사와 취재 계획을 세웠다.

한국에서 준비를 마친 학생 취재단이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현지에는 취재단을 도와줄 재중국인회와 관리하는 한국인올림픽지원단의 자원봉사자도 준비를 마쳤다. 올림픽 취재단을 돕는 자원봉사단은 북경대학, 칭화대학, 북경어문대학의 우리학교 교환학생 8명과 현지의 동문자녀 6명으로 구성됐다. 올림픽 취재단의 각 조별로 1.2명의 자원봉사자가 전담을 맡아 정보를 교류하며 일정을 조정했다.

이들은 학생 취재단의 결집체인 언어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취재를 도왔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김익환(경행81졸) 동문의 자녀 북경인민대부속중학교 2학년인 김주빈 군은 “함께 취재하면서 간단한 카메라 조작법도 배웠고, 통역을 해주면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며 단순 도움을 준 것만이 아니라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냈음을 강조했다.

학생 취재단의 취재는 축구, 양궁, 야구 등 다양한 올림픽 경기와 코리아하우스의 개관식, 한국인의 밤 행사, 국가대표 선수들, 이원택 대한체육회장, KOC 조재기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올림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베이징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타국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까지 다양하게 이뤄졌다.

그 결과 올림픽 기간 동안 120여건의 방송프로그램과 기사가 동국인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또한 지난달 5일 우리대학에서 중앙일보 조인스닷컴과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지고 베이징 올림픽 공동취재 및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협약체결을 했다. 이를 통해 학생 취재단의 기사가 조인스닷컴의 올림픽특집 페이지의 ‘대학생 리포트’ 섹션에 게시되었다.

한편 누리꾼들에게 학생취재단의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국인 홈페이지, 조인스닷컴 외에도 다음 블로그에서 취재 결과를 함께 업데이트해 누리꾼들과 만났기 때문이다. 장용석(산신공3) 학생의 북한 응원단 이숙향(16) 양을 단독 취재, 다음의 블로그 뉴스로 보도해 10만 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으며 연합뉴스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동대신문사 정동훈(경제2) 기자의 북측응원단 취재 후 작성한 ‘중지합니다’ 칼럼이 블로그인기뉴스 1위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됐다. 이와 함께 금메달을 딴 직후 그의 아버지와 이루어진 인터뷰 등 고유석(사학3) 학생의 기사가 다음 홈페이지의 메인기사로 게재되기도 했다.

미디어센터 윤재웅(국어교육) 센터장은 “우리 학생들과 북경 동문회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낳았다”며 “다음해에도 이러한 학생들과 동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취재 후기

김수영
올림픽 취재단 학생기자 · 국문4
kimmo-c@hanmail.net



스마일 베이징

베이징에서 보낸 시간들을 돌아보면,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우선 떠오른다. ‘보지 말고 말 걸자’는 나만의 원칙 덕분에, 기억 속의 시간들은 오롯이 ‘그때 그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중국에서 배운 것도 느낀 것도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였다.

개막식을 몇 시간 앞둔 때, 왕푸징에서 거리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의 얼굴들과 처음 만났다. 그곳에서 ‘스마일 베이징, 친절 한 베이징’을 실감할 수 있었다. 웃고 있는 베이징의 얼굴들은, 그들의 성공적인 올림픽 열원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다. 이날 인터뷰한 외국인들도 하나같이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자원봉사자 윌리엄 윈더 씨는 이렇게 말했다. “잘 봐라. 베이징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 한 걸 본적이 있느냐?”

올림픽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번 올림픽은 그들에게 단순한 축제를 넘어 ‘과거 번성기 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원드림(one dream)이었다. 통제와 규제로 점철한 중국 정부의 원 월드(one world) 정책이 가능했던 것도 이들의 나라사랑, 올림픽 사랑 덕분인 셈이다. 개막식 날, 시내의 지하철과 도로가 모두 통제되었다. 왕푸징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곤혹을 치렀지만, 그들은 어떤 불편도 ‘기꺼이’ 감수하는 듯 보였다.

올림픽이라는 축제와는 멀리 있었지만,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던 판자집엔 사람들도 내겐 잊지 못할 추억이다. 골동품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들은, 자신의 일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진짜 예술가들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마치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이 수줍게 털어놓는 그들의 진심이 이야기를 받아 적는 나까지 설레게 했다. 마지연강 씨가 보여준 손 때 문은 도장 작품집, 놀러오면 3층집에서 재워주겠다고 딱 한 장 뿐이었던 명함을 손에 쥐어주시는 윤남성 할머니. 그야말로 내 애정이 담긴 기억이다.

애정하면 베이징에서 느꼈던 선배들의 학교사랑, 후배사랑도 빼 놓을 수 없다. 중국에 머문 동안 우리 기자단은, 선배님들 댁에서 홈스테이를 했다. 하루 밤만 묵어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엄격한 체류 법에 따라, 각 집마다 거주 등록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선배님들 덕분에 우린 잘 먹고 잘 지내다 왔지만, 열흘간 함께 지내면서 여러모로 불편하셨을 거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그 어떤 기억도 갖고 있지 못한 나로서는, 이번 올림픽 현장 체험이 무척이나 의미 있었다. 책으로 기사로 만 접한 중국은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고, 그곳의 열기를 만나고 취재하는 일은 짜릿함 그 자체였다. 24일, 한국에 돌아와 TV로 폐막식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히 아쉬운 마음까지 들었다. 손님이었던 내가 이런데 말야, 그 뜨거운 애정을 과시하던 베이징 사람들은 얼마나 허전해했을까. 그들은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취재단에겐 중국동문회가 금메달리스트”

홈스테이 · 통역 등 물심양면 협조 ... 취재단 깊은 감동



▲ 북경 동문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윤재웅 동국미디어센터장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2008 베이징 올림픽의 현장에 우리대학은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25명이라는 대규모 학생기자단을 파견하였다. 이 특별한 기획은 무엇보다 홈스테이, 통역, 취재협조 등 물심양면으로 취재단을 도운 동국대 중국동문회(회장=김익환·경행81졸)의 역할이 컸다. 일명 ‘올림픽 물가’로 인해 열배 이상까지 치솟

는 숙박비문제를 동문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로 해결하면서 더 폭 넓은 취재가 가능했다.

북경 동문회 김태호(경제87졸)동문의 사모님은 학교의 이런 과격적인 취재단 파견에 감탄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중국 동문들이 학교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고, 남편의 후배들과 함께 하면서 세대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왕징신청병원’은 취재단의 베이스캠프가 됐다. 베이징 올림픽 한인 지원단의 의료 안전팀장도 맡고 있는 황인원(국문82·왕징신청병원장) 동문은 취재단이 회의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선뜻 병원 회의실을 빌려줬다.

올림픽 취재단이 중국에 오기 전까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의사소통 문제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올림픽 기간에 베이징 시민들의 80%이상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택시기사와의 기본적인 대화조차 통하지 않던 적이 더 많았다.

베이징 소재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우리대학 출신 자원봉사자들과 동문 자녀들이 취재단과 함께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됐다. 그들은 취재단의 입이 되어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 땅에서도 무리없이 취재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재중 한인회 소속 올림픽 한인지원단과 동국대학교 북경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원희 총무는 한국-카메룬의 축구 경기, 양궁 시합 등 경기 티켓 구매의 다리역할을 해주었다.

또한 재중국한인회(회장=김희철)와 ‘2008 베이징 올림픽 코리아 응원단’이 베이징 라이광잉에 위치한 흉타양 식당에서 응원했던 소식도 이원희 동문의 도움으로 알 수 있었던 내용.

이 자리에서 이준희 전 천하장사, 유인탁 레슬링 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실 배드민턴 금

메달리스트 등 과거의 올림픽 스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왕징 지역의 재중국대한체육회에 자주 모습을 비쳤던 선수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윤경진 선수 인터뷰 등을 취재할 수 있었다.

북한 응원단 소녀 단독 취재로 화제를 낳았던, 북한 여자 축구 경기 시합의 원정 취재 일정도 동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천진에서 온 천진민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수(회계83졸)동문은 호텔숙소를 제공했다. 박광후(물리86졸) 동문은 미리 티켓 구매를 해주는 등 동문들의 도움은 천진까지 행진을 계속 했다.

왕징 프라임호텔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스는 베이징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선수단의 지원센터 역할을 맡았다. 이 곳은 입상한 선수들의 공식 기자회견장 및 한국스포츠의 홍보공간으로 활용됐다. 이원희 총무는 코리아하우스에 동국대 올림픽 취재단 기자가 입장할 수 있도록 데일리 패스 카드를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 올림픽 취재단에 제공해 주었고, 덕분에 ‘피오나 공주’ 장미란 선수 인터뷰 등 많은 취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 취재단으로 활동했던 정동훈(경제2)기자는 “너무나 값진 추억을 만들도록 도와주신 선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 타향에서 한국보다 더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간다. 후배로서 선배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도 졸업을 하면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며 동문들의 사랑의 깊은 감사 표시를 전했다.

이 모든 것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피보다 진한 동문들의 헌신적 도움과 사랑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동국인’이라는 이름아래 이루어진 합작들은 다시 한 번 동국대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 듯싶다.

차은빛 올림픽 취재단 학생기자 · 국문4 nicegirl208@hanmail.net

한·중·일 대학생이 바라 본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동북아 화합 계기 마련”

지구촌의 축제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로써 동북아 3국이 모두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된 것이다. 현재 베이징에 살고 있는 중국인 평민(인민대2)양, 일본에서 온 나카시마 소타(북경대 어학연수생)군, 우리나라의 유진영(북경사범대 교환학생)양, 서로 국적이 다른 학생들이 느끼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 들어왔다.

세 학생은 올림픽 속 숨은 일꾼들이다. 평민양은 대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올림픽의 이모저모를 취재하고 있다. 소타 군과 유진영 양은 각각 한국인, 일본인의 올림픽자원봉사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민양 양은 ‘올림픽 취재 중 만난 82세의 할아버지 봉사자가 기억이 남는다. 올림픽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16년동안 몸을 단련하셨는데, 그 열정이 참 대단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올

림픽 일본 유도 대표팀의 통역을 맡은 소타 군은 “선수들 가장 가까워서 밥의 결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 기쁘다”며 뿌듯해 했다. 유진영 양은 “자원봉사단이 빠빠한 경기일정에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다”며 피곤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응원물결과 선수들의 선전소식을 들을 때면 피곤이 싹 가신다고.

유진영으로 화제가 모아지자 자연스레 ‘반한감정’으로 화제가 이어졌다.

소타 군과 평민양 양은 ‘한국인들의 무례한 태도’ 때문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평민양 양은 “한국의 한 방송사가 올림픽 리허설을 보도해 반한감정이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보다 평소 중국인들을 더럽다고 깔보고, 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 때문에 반한감정이 고조된 듯하

다”고 말했다. 소타 군 또한 “한국 유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기숙사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며 불만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유진영 양은 “일부 경솔한 유학생들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굳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학생들도 있는 만큼 너무 일반화시켜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호소했다. 두 학생도 성급한 일반화로 과도한 비난을 일삼는 것은 좋지 못한 태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세 학생은 ‘One World One Dream’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뜻의 올림픽 슬로건처럼 한, 중, 일 세 나라가 화합하는 끈끈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 유진영(북경 사범대 교환 학생) 양

▲ 평민양(인민대 신문방송2) 양

▲ 나카시마 소타(북경대 어학연수생) 군

“한국 선수단 선전 소식에 힘이 절로”

“올림픽에 열정 쏟는 중국인 자랑스러워”


“자원봉사 통해 맘의 결실 도와 뿌듯”



'One world, One dream' 우리는 하나였다

사진 = 이정훈·고유석 올림픽 취재단 학생기자



 우리대학 동국미디어센터가 대학최초로 올림픽에 학생 취재단을 파견했다. 베이징 올림픽은 개막하기 전부터 과도한 통제로 '안돼 올림픽' 이니 '공안 올림픽' 이니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막 이후 베이징에 모여든 세계인들은 인종과 종교, 민족을 초월한 우의를 다졌다. 동국대학교 학생취재단은 올림픽 현장 곳곳을 누비며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사진에 담았다. 편집자

□ 사진설명 위 : 오대양 육대주를 상징하는 오색의 각 국 응원단
 □ 사진설명 아래 : ①중국 현대 소설가인 라오서 기념관에서 동국대 학생기자를 인터뷰하는 중국 양주일보 취재진 / ②③올림픽 특집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촬영중인 학생 방송제작진 / ④친화다오에서 열린 한국 대 카메룬 경기가 끝난 후 길거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학생기자들 / ⑤인공강우 기술로 모처럼 활짝 개인 베이징 하늘 아래 천안문을 경배하는 중국 공안의 모습이 이번 올림픽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